

疾藜子에 對한 考察

김 명 관

1. 分類

① 疾藜子(刺疾藜)

② 黑疾藜

③ 白疾藜

〈沙苑疾藜=중국의 말 키우던 목장지역명(本草引用)〉

×해변가 모래처, 모래밭 기록은 오기인것 같음(향약집성방)

2. 狀態

① 疾藜子

：時珍曰 狀如 和根茶子와 及 細菱하고 三角四刺로 實有仁이오 黃勻色

② 黑疾藜=疾藜子와 같으나 灰黑色

3. 氣味

① 疾藜子：本草苦溫 入門 苦辛 微涼 鄉藥集成方 苦辛性溫 或微寒 東醫寶鑑 性溫苦辛

② 黑疾藜：疾藜子에 비해 氣味가 더 강한 것 같음

③ 白疾藜 . 本草 味甘微腥 入間 本草引用

4. 時珍曰：古方엔 補腎治風 皆用 刺疾藜子 後世엔 補腎多用 沙苑疾藜

5. 採取 : 7, 8, 9 或 冬月(지역에 따라 채취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冬月에도 가하다는 뜻, 또 결실이 잘 된것을 쓰라는 뜻으로 .)

6. 黑白

- ① 上右神仙方엔 黑白가리지 않고 結實이 잘된 것을 쓰라했다. 處方은 아니고 單味方이다.
- ② 入門엔 黑藜는 쓰지 말라고 했다. 왜는 기술치 않았다.

7. 炒

白疾藜는 補腎爲主라 껍질을 버리고 仁을 取해 炒하여 쓴다는 것 맞을지 모르나 疾藜子는 炒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或 분쇄하기 용이하려고 炒하였던가 (風家の 丸散劑엔 炒하여 去刺用) 苦味로 清韭 瀉火 辛味로 發散 風溫 이런 藥性은 炒하면 藥力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이다.

8. 結論

- ① 근래에 우리가 쓰고 있는 疾藜子는 엄연 刺疾藜子이다. 단 表面色이 白色이 많으니 白疾藜라고 기록한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서부터 오기이다.
- ② 味는 苦辛이 맞고 性은 微涼或性平으로 봄이 맞을 것 같다. 왜냐하면 疾藜子는 臭味가 그렇게 매운맛 냄새가 강하지 않고 色도 朱紅赤도 아니고 苦味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
- ③ 끓여서 거품은 없으나 증기속에 약성이 많이 증발한다 약성이 升降을 겸한다는 뜻이다
- ④ 破血消癥 髓胎는 믿어지지 않고 黑藜의 藥性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. 黑藜의 氣味가 더 강한것 같고 黑色이 血分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- ⑤ 현재의 疾藜子 藥性은 諸風瘡毒 腫耳痒 頭痒 眩暈爲主로 쓴다. 이것은 肺經藥이다. 肺=色白 辛味이니 확실해야 되고 또 瘡毒腫痒을 다스릴러

■ 疾藜子에 對한 考察

면 苦味도 확실해야 한다.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綠黃白色 疾藜子是 臭味가 탁하고 뚜렷치 않다.

⑥ 綠黃色 綠黃白色 黃白色 灰白色 순으로 臭味도 분명하고 강해지고 三角 四刺도 뚜렷하여진다 (이것은 채취시기를 적시냐 아니냐를 결정한다)

이로서 유통되고 있는 疾藜子는 黑藜가 혼합되어 있고 미성숙 열매이므로 불량한약재인바 회수, 파기하여야 됨을 주장한다.